

Foreword

One hundred years ago, Léonard Tsuguharu Foujita (1886–1968), a pioneering figure among expatriate Japanese artists, achieved great fame in Paris, which was then the center of the art world. In 2018, on the 50th anniversary of his death, we are holding a retrospective exhibition surveying his entire artistic career.

Foujita was born in Tokyo in 1886 during the Meiji period (1868–1912), a time of great change in Japan. After graduating from the Tokyo School of Fine Arts (the present-day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he went by himself to France at the age of 26, filled with high aspirations. There he established his own artistic style and achieved prominence in the 1920s as one of the émigré artists of the École de Paris. During World War II, Foujita produced documentary war paintings in Japan. Once the war was over, he returned to France and became a French citizen, continuing to paint energetically until his last days. Foujita died in 1968 at the age of 81 and was buried at a chapel he built in Reims in northern France.

This exhibition brings together works from some 50 collections in Japan as well as important works from more than 10 collections in France, Switzerland, Belgium, the United States, and Hong Kong. It is the most comprehensive Foujita retrospective ever held. Foujita produced not only paintings but also a wide variety of creative works, including book covers and illustrations, photographs, films, stage art, writings, and ceramics. The exhibition features more than 100 examples of his signature “milky white nudes” as well as landscapes, portraits, and religious paintings. We hope the exhibition will promot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rtist Tsuguharu Foujita and his artistic career, and will encourage further study of his achievements in Japan and abroad.

Finally, we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many collectors who agreed to exhibit their precious works and to all those who have supported, sponsored, or cooperated with the exhibition.

The Organizers

寄语

距今约一百年前,作为活跃于海外的日本艺术家的先驱,藤田嗣治(Leonard Tsuguharu Foujita,1886-1968)在当时的世界艺术中心巴黎功成名就。今年恰逢他逝世50周年,我们特此举办全面介绍其绘画生涯的展览会。

藤田嗣治出生于明治中期,从东京美术学校(今东京艺术大学)毕业后,26岁的他踌躇满志,单身前往法国。在那里,他确立了自己的绘画风格,并在20世纪20年代一跃成为巴黎画派的宠儿。太平洋战争期间,藤田嗣治在日本创作战纪实画。战后他回到法国,取得了法国国籍,直到晚年他一直在不知疲倦地进行创作。藤田嗣治于1968年去世,享年81岁,安葬在法国北部兰斯自行建造的小教堂里。

本次展览除了来自日本国内约50处收藏单位的藏品外,还从法国、瑞士、比利时、美国等10余处海外收藏单位收集到了藤田嗣治的代表作,是迄今为止最大规模的回顾展,全面地介绍了藤田嗣治的绘画生涯及其生平。除了绘画作品,藤田嗣治还在书籍插图和装订、照片、影像、舞台艺术、著作、陶瓷器等广泛的领域留下了其作品。这次展览中,包括可说是藤田嗣治的代名词的“乳白色背景”下的裸女在内,将以风景画、肖像画、宗教画等超过100件绘画作品为中心进行介绍。

我们希望这次展览能加深大家对画家藤田嗣治及其绘画生涯的了解,成为今后国际间推进藤田嗣治相关研究的契机。

最后,在此对为举办本次展览会而出借珍贵作品的各位收藏家,所有支持、赞助和协作方表示衷心的感谢。

主办方

인사말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세계 미술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이름을 떨치고, 해외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아티스트의 선구자가 된 후지타 쓰구하루(레오나르 후지타, 1886–1968). 사후 5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그의 업적 전모를 소개하는 전람회를 개최합니다.

메이지 시대 중엽 일본에서 태어난 후지타는 도쿄미술학교(현재의 도쿄예술대학)를 졸업한 후 높은 뜻을 품고 26세에 홀로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독자적인 화풍을 확립하여 1920년대에는 일약 에콜 드 파리의 총아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에서 작전기록화를 제작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만년까지 열정적으로 제작을 계속했습니다. 1968년에 81세로 숨을 거두었고, 북프랑스 랑스에서 자신이 세운 예배당에 안치되었습니다.

본 전람회에서는 국내 소장처 약 50곳과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미국 등 해외 10곳을 넘는 소장처에서 대표작을 모았습니다. 후지타 쓰구하루의 업적과 그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지금까지의 전람회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회고전입니다. 후지타는 회화 작품뿐만 아니라 서적 삽화와 장식, 사진, 영상, 무대예술, 저작, 도자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물을 남겼지만, 본 전람회에서는 후지타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유백색의 바탕색”으로 표현한 나무를 비롯해 풍경화, 초상화, 종교화 등 100점 이상의 회화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본 전람회가 화가 후지타 쓰구하루와 그의 업적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국제적으로도 후지타 연구가 더욱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전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귀중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소장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후원과 협찬, 협조를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최자